

#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7.03 (통권255호)

## 경제 이슈

- 주요국 제조업 지수 상승
- 국내 외환보유액 증가 지속

## 경영 노트

- 소니 몰락에서 배우는 교훈

## 사회 트렌드

- 트랜수머(transumer)

## 차이나 리포트

- 중국 대외 거래 위안화 결제 본격 시행과 시사점

## 저널 브리프

- 트위터(twitter) 혁명

## 洗心錄

- ‘꼴, 꼴, 꼴’의 의미

## □ 주요국 제조업 지수 상승

-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일본 제조업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됨으로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
  - 미국 :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하는 지수는 2009년 6월에 44.8로 2008년 12월에 32.9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 50 미만 수준을 유지
  - 중국 PMI 지수 :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 Index)는 6월에 53.2로 4개월 연속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을 유지
  - 일본 단칸 지수 : 2009년 1/4분기에 -57까지 하락하였으나 2/4분기에 -55로 반등함으로써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고조
- 한편, 미국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6월에 9.5%로 증가하고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5월에 32만 2,000명으로 감소에서 6월에 46만 7,000명 감소로 확대됨으로써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

## □ 국내 외환보유액 증가 지속

- 한국은행(2일)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4개월 연속 증가 지속
  - 외환보유 규모 : 2009년 6월말 현재 2,3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말 2,012억 2,000만 달러 대비 15.2%(305억 1,000만 달러) 증가, 전월대비 2.2%(49억 6,000만 달러) 증가
  - 외환 보유 구성 : 유가증권 89.9%(2,083억 4,000만 달러), 예치금 9.7%(223억 9,000만 달러), IMF 포지션 0.4%(8억 3,000만 달러), SDR 0.04%(9,000만 달러), 금 0.03%(8,000만 달러)로 구성
  -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 : 운용수익, 국민연금의 통화스왑 만기도래분(4억 3,000만 달러) 상환, 영국 파운드화 등의 강세로 인한 미 달러화 환산액 소폭 증가 등에 기인
- 한편, 주요국의 2009년 5월말 외환보유액은 중국 1위(1조 9,537억 달러), 일본 2위(1조 240억 달러), 러시아 3위(4,042억 달러), 대만 4위(3,126억 달러), 인도 5위(2,623억 달러)에 이어 한국은 6위(2,268억 달러) 수준을 유지

□ 소니 몰락에서 배우는 교훈\*

- 세계적인 전자 업체인 소니가 2008년 회계연도 중 2,278억 엔(약 3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음
  - 소니의 주력 품목인 TV, 게임, 휴대폰시장 등에서 경쟁사에 밀림과 동시에 최근 경쟁 심화로 판매단가가 급속하게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됨
- 세계적인 기업, 소니 몰락의 근본 원인
  - 기술에 대한 자만심과 유연성을 상실한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이 글로벌 기업인 소니를 몰락의 길로 인도했음

구 분	내용 및 사례
트리니트론의 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읽지 못함</li> <li>· 워크맨의 개발로 ‘소니가 만들면 표준이 된다’라는 생각속에서 시대의 흐름인 MP3 개발대신 독자적인 미니디스크(MD)개발에 주력</li> </ul>
캐시카우의 도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니가 강점을 두고 있던 제품들을 미래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빠르게 포기함</li> <li>· 90년대 브라운관 TV '트리니트론' 시리즈로 세계를 호평했지만, LCD와 PDP TV 유행에 따라 지나치게 빠르게 브라운관 제품 포기</li> </ul>
사일로의 비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간 독립채산 시스템을 도입한 후 사업부간 커뮤니케이션 마비</li> <li>·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회사를 이끌던 이데이 노부유키 전 대표의 독립채산 시스템으로 개별사업부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차단함</li> </ul>
햄릿 중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사보다 먼저 제품 등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드라이브 시점을 놓쳐 시장 선점에 실패</li> <li>· 세계 최초 LED TV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OLED 제품과 LED 중 어떤 제품을 밀지 고민하다가 삼성에 선수를 빼앗김</li> </ul>

- 기업은 시장 선도를 위한 R&D 개발에 역량을 쏟아야 하지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임
  - 정확한 고객 니즈 조사를 시작으로 영업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모든 사업부간 진정한 업무 협업을 통한 경영을 이루어야 할 것임

\* “우리가 최고, 몹쓸 자만심이 소니 추락의 시작이었다”(한국경제, 2009.7.1) 참조

□ 트랜수머(transumer)\*

- 트랜수머란 물건을 사지 않고, ‘빌리는’ 소비자를 가리키며, ‘transient(일시적인)’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
  - 네덜란드 마케팅연구소인 ‘트렌드워칭’이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 이제는 마케팅업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됨
  - 트랜수머들이 빌리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해서, 옷부터 시작해, 스포츠카, 별장, 제트기, 애완동물까지 모든 것을 빌림
  
-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 이런 트랜수머들이 급증하고 있다 함
  - ‘프랙셔널라이프(FractionalLife.com)’ 등 대여 사이트들이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음
  
- 트랜수머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
  - 첫째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빌릴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
    - 최근의 경기 불황 속에 이런 유형의 소비자들도 늘고 있음
  
  - 둘째는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경험’하려는 유형
    -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어떤 물품을 ‘보물(treasure)’처럼 갖기보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유해 ‘쾌락(pleasure)’을 얻는 데 집중하는 소비자
  
  - 셋째는 에코(ECO) 트랜수머, 즉 환경보호 차원임
    -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끊임없이 새 물건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가속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임
    - 즉 책이나 DVD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자연자원이 소모되지만, 물건을 서로 나누면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음

---

\* “미 트랜수머 급증”(조선일보, 2009.7.1) 참조

□ 중국 대외 거래 위안화 결제 본격 시행과 시사점

■ (개요) 7월 2일 중국인민은행(중양은행)은 국내(중국)기업들이 저 홍콩, 마카오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시행방안을 발표

-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결제 허용 방안의 목적은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결제 통화의 가치변동성 확대는 중국과 주요 교역국과의 거래를 위축
  - 또한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정부가 2조 달러를 상회하는 방대한 외환을 관리하는 데도 난이도 증대
  - 금융위기 발발 이후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약화는 중국이 위안화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주요 내용) 위안화 결제 방안은 주요 경제발달 지역을 시행 범위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와 수출 관련 세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

- 위안화 결제 허용 방안의 지역 범위는 동남 연해 지역에 국한
  - 위안화 결제 허용 범위를 대외적으로는 홍콩과 마카오, 대내적으로는 상해(上海), 광주(广州), 심천(深圳), 동관(东莞), 주해(珠海)로 국한
- 홍콩, 마카오 은행들은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인가한 중국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위안화 태환과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중국 내 위안화 결제 은행들은 자금이 필요한 역외 기업에 수출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 중국은 위안화 결제 수출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 지금까지는 외화 결제 수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위안화 결제 제도 시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었음

■ (전망) 홍콩이 역외 위안화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짐

- 중국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역외의 위안화 계좌에 예치할 수 있으므로 홍콩이 역외 위안화 거래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짐
  - 홍콩의 위안화 예금금리가 과도하게 낮아 위안화 허브로의 도약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향후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위안화 결제 수출 대금을 중국 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될 것임
  - 중국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외국기업들의 중국 자산시장 투자가 허용되면 위안화 결제 제도는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문제점) 중국 당국의 외환에 대한 통제 유지, 환위험 헷징 수단의 부재 및 예금금리가 과도하게 낮음으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

- 금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의 외환 유출입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의 위안화 대차 거래의 규모와 기한에 대한 상한 설정을 유지
- 해외기업들이 위안화 환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예금금리가 과도하게 낮은 점은 위안화 결제 제도 성공에 걸림돌로 작용
  - 중국은 위안화 결제 제도의 순항을 위해 역외 위안화 교역시장 구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음

■ (시사점) 중국은 홍콩, 마카오뿐만 아니라 ASEAN 과도 위안화 결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위안화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대 중국 교역에 있어 자국통화 결제 비중을 점차 늘려야 함

□ 트위터(twitter) 혁명 (\* twitter : 지저귀다, 지저귀듯 지껄이다)

■ (개요) 트위터는 짧은 문장(140자 이내)을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 트위터는 발신자가 송신하는 메시지를 사전에 받아보기로 등록한 이용자(follower, 지지자)에게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
  - 송신자 의사와 상관없이 메시지 받아보기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다단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가 다수에게 급전송
- 기존 블로그나 싸이월드는 장문이며, 발신과 읽는 시점간에 차이가 있고, 휴대폰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트위터보다 대량 속보 기능이 떨어짐
  - 또한 트위터는 댓글 기능이 없어 욕설이나 비방성 댓글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이용 확산의 주요 이유 (\*답장을 보낼 수는 있음)

■ (현황) 트위터는 ‘알고 싶은 사람’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기능으로 유명인들의 대표적인 필수 소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 2006년 여름에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현재 회원 수는 600만 명 정도
  - 5월 동안 전세계 1,820만 명 이용 (\*국내 5월 셋째주 12만 명 이용)
- 트위터는 이란 사태 현황을 CNN보다 더 빠르게 전달하면서 급확산
  - 타임지는 커버스토리에 “트위터 여론 형성 수단으로 부상”을 표현
  -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은 이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평가
- 국내 회원 가입 현황
  - 정치인: 김형오 국회의장, 이재오 전의원,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 김철균 청와대비서관 (\* 대통령도 방미 중 트위터 향후 이용 계획 발언)
  - 체육·예술인: 김연아, 이효리
  -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한국관광공사

□ ‘꼴, 꼴, 꼴’의 의미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죽음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혹자는 세 번의 ‘꼴’이라고 말한다. ‘꼴’이란 ‘꼴, 꼴, 꼴’하고 기분 좋게 웃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생 동안 자신이 살아가면서 저지른 3가지 큰 실수에 대해 ‘~했으면 좋았을 꼴’하고 후회한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 ‘꼴’은 ‘보다 베풀고 살았으면 좋았을 꼴’이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 재산을 정리해보면 돈 천 만원은 나온단다. 그래서 그 돈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다 놓고 갈 꼴, 왜 그토록 인색하게 살았을까!”하고 후회한다고 한다. 두 번째 ‘꼴’은 ‘보다 용서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꼴’이다. 죽을 당시에는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그토록 미워한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 이렇게 끝날 것을, 왜 그토록 미워했을까!” 후회한다고 한다. 세 번째 ‘꼴’은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았을 꼴’이다. “어차피 죽는데, 왜 그렇게 재미없게, 먹고사는 데 급급하며 살았을까!”하는 후회의 ‘꼴’이다.

명지대 김정운 교수는 미래가 아닌 지금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는 데 노력한다면 후회의 ‘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행복이란 하루 중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선 우선 남편, 상사, 교수, CEO 등 타인으로 부터 정의된 역할이 아니라 ‘원두커피를 갈아 마신다든지’, 아니면, ‘만년필을 수집한다든지’와 같이 자기만이 좋아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찾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재미있는 일을 지금부터 의식(의례)처럼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지금 돈을 포기하는 대신 많은 돈을 모아 노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지!’라는 생각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데 노후에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신만이 느끼는 ‘재미’를 찾아 행복해진다면 스스로 관대해져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후회는 자연히 없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직장을 포함한 사회적 역할도 즐겁게 할 수 있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 탈무드 -